

# 이렇게 들었다

## 경조사 거품빼기

###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물건을 주는 때는 다섯 가지 뜻이 있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가까이하여 뜻을 얻는 것, 존중하는 것, 오래 마음을 통하는 것, 내 것을 쓴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기쁜 것이다.”

〈근본설일체유부〉

“절약하되 재물이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 취하고 그것에 흠뻑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니, 그는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옥의 괴로움의 값을 받으리라.” 〈잡아람경〉

“우리의 혼·상례문화는 사치와 낭비 탓에 큰 사회적 병폐로 얼룩져 왔다. 이를 일부 사회지도층이 주도해왔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아름다운 혼·상례를 위한 사회지도층 1백인 선언’의 한 구절이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 1백여명으로 구성된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가 경조사 문화의 거품빼기를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이날 ‘아름다운 혼·상례문화’ 정착을 위해 △형편상 남발하지 않고 화환 축의금 사절 △결혼식 하객은 신랑·신부측 각각 1백명 이내로 한정 △부수에 맞는 예물과 예단 선택 △호화 혼례의 주제를 말지 않고 하객으로도 참석 자체 △조화·조의금 사절 △화장 남용하기 등 8개 실천 지침도 함께 채택했다.

유난히 씨족 관념이 강했던 우리 나라는 가족 집단의 범위가 작지 않았다. 크고 작은 길흥사에 모두 모여 서로 돕고 우애를 나누는 미풍양속은 생각만 하여도 흐릿한 정경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 생활개혁 실천범국민협의회가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적 병폐를 넘어 인간관계 자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의 호화 혼·상례 등은 오히려 겉으로 치르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고 빈부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고위층들에게 이렇게 설했다. “서민들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마라.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한 줄 알라(불우교경)”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허례허식의 문화가 팽배해져서 까닭은 무엇일까. 겉으로 진실한 것을 삶의 근원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몸집은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아 소처럼 늘어간다(장로계경)”고 강조했다.

경조사의 거품을 빼고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지식인들의 선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행사가 선언적 캠페인이 아닌 직접 실천을 약속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몸이 영원한 줄 어이해 믿었던고, 낭비를 일삼으며, 익혀온 악습 즐기다 했더니 노병에 짝 잃으니 후회해 무엇하리.”〈법구경〉

날이 갈수록 물욕과 향락으로 인해 사치와 낭비를 탐닉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같은 부처님의 충고와 자비스러움은 더없는 처방전이 될 것이다.

김중근 기자

# 탈북자 문제 미온대처 안될 일

## 불자 세상보기

탈북자 징집수군 가족 7명이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던 길수네 가족문제가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농성 5일 만에 중국 정부의 배려로 ‘제3국 추방’ 이후 한국 입국 형태로 해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길수네 가족의 서울행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가 또 다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처우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7월 9일자)는 북한을 지구상의 최악의 국가라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주민들이 자신들을 파리처럼 죽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거대한 수용소가 바로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북한내부의 심각한 식량난,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탈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체제위기가 다소 진정된 듯 북한 고위층의 망명현상은 둔화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탈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늘어난다는 것은 식량난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에서 다수의 가정이 깨어짐으로써 북한 전체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건설하겠다는

## 정치적 선별수용 지양

### 통일이후 대비차원

### 정부 대책마련 급선무

북한당국의 이상이 허구였음을 북한 주민들도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탈북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탈북자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의식하여 탈북자 문제에 있어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탈북자 중에서 ‘선택받

은 운 좋은 소수’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굶주림,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특수(체포조)와 체류국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해 고달픈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탈북자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인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탈북자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인국을 희망하는 탈북자 전원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 송환될 경우 수용소에 갇힐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관련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여 이들이 난민지위를 부여받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 중에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월경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과

청한 일부 소수를 대상으로 한 탈북자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탈북자의 실태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탈북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의 대책 수립은 인도적·동포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 대비 차원의 문제이다. 소수의 탈북자들을 포용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역량으로는 많은 북한주민을 포용하여 함께 사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열린마당

## 불교포럼 7월 토론회 제3 수행법은 불교수행법인가

### “깨달음 상품화-불교편파 우려”

#### 진현중 <출판기획자>

제3수행법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3수행법은 행법의 연원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기를 꺼려하며, 단순한 수행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대부분이 자신들의 수행법이 가장 쉽게 깨달음을 혹은 어떤 정신적 목표로 인도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마음수련회의 경우 최고 경지라는 전인완성 단계까지 최소 7주에서 최대 11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제3수행법의 대부분은 행복과 건강 같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며, 대체적으로 깨달음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짙다. 때로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불교를 폄하하기도 한다.

이를 불교와 비교해보자. 불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으며 깨달음의 빠른 성취보다는 깨달음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이타행을 더욱 강조한다. 비공공적인 가르침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수행을 상품화하는 일은 없다. 행복이나 건강은 목표가 아닌 수행의 부수적인 효과일 따름이며, 실천적 수행법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교학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도 불교와 제3수행법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3수행법은 불교의 개념을 여러 형태로 차용하고 혹은 변용하고 있어 언뜻 보면 불교와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하지만 제3수행법은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는 개념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나를 중심으로 한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나’를 버리고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제3수행법이 나름대로 단순성, 합리성, 과학성을 주장하고 있고, 어느 정도 불교를 안다고 하는 불자들이 이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자들에게 제3수행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불교의 수행법을 다양화하고 현대화해서 수행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진현중

### “전통수행법 재점검 촉매역할”

#### 동준스님 <목포 김상사 주지>

제3수행법은 불교의 교리나 수행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대부분이 수행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치 불편했던 교통수단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듯이, 수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보다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여겨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근래 들어 제3수행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불자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교 수행법에 한계를 느껴 새로 등장한 제3수행법에 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양한 수행방법을 체험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불교 내에서 불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수행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교 수행법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과학화되고 표준화될 수만 있다면 제3수행법과 같은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불교는 이제 전통적인 수행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보다는 한번쯤 점검하고 현대적인 수행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때다. 불교 수행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프로그램화시키는 작업이야말로 불교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귀중한 일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원을 종단 내에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우리 불교가 처한 현실에 비춰볼 때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한 불사다. 우리의 전통 수행법뿐만 아니라 남방불교나 티베트 등 불교국가들의 수행법을 연구해 수행자는 물론 일반불자들을 위한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선택해 수행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사찰에 가든 수행에 대한 의문이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준스님

### “특이한 체험, 해탈과 혼돈 말길”

#### 김상태 <한국 트랜스퍼설 연구회장>

아빠타 프로그램은 신념이 모든 경험적 현실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즉, 부정적 신념을 없애고 긍정적 신념을 창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빠타 코스는 투명한 신념, 투영, 투사, 신념, 불투명 신념을 다루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관점은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과도 너무나 흡사하지만, 여기에 바로 합점이 있다. 정신치료 및 심리치료 전문가를 키우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아빠타 마스터는 불과 3주 만에 양성된다. 그러나 선입견을 깨닫지 못하는 훈련은 하루아침(3주)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몸과 마음, 느낌과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진리를 주장하고 수행을 논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수학적 진리와 같은 계량적 지식의 차원으로 종교적 진리를 환원시킬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수학적·과학적 진리는 보편타당성과 검증가능성을 갖추도록 진리라고 할 수 있으나, 정신적 진리는 보편타당성과 검증가능성은 물론 죽음, 공포, 불안의 극복이라는 정신자세의 문제까지도 포괄해야 한다.

선이나 명상법들은 명상중의 특별한 경험, 즉 아름다운 광경이나 소리 같은 것들이 수행에 장애로 간주하고, 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빠타는 이것을 즐기라고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수행의 본질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빠타 마스터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싶다. 마음속의 의식으로부터 단절된 콤플렉스를 갖춘 채 ‘해탈의 길’을 해탈의 경지로 혼동하는 자기기만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것을.



김상태

#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중(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영 (2년제 기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敎大學

학장 헤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최봉수교수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숭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자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연찬회원(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어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를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 송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남산도서관

□ 남산순환도로

□ 하얏트

□ 대원정사

해방촌거리 1